

1. 주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행해 오셨다

2. 마음 수련

2. 마음 수련은 어떻게 합니까?

2. 마음은 기도하고, 참고, ○○을 고치고, 행할 것을 행하고, 버릴 ○○을 버리고, 주님을 사랑하고, 모르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될 때 수련이 됩니다. 알아야 담대해집니다.

모순, 습관

4. 낙타바위와 같은 월명동의 바위 절경 네 군데는 어디입니까? 이곳을 알려주시면서 주님은 무엇을 지적하며 말씀하셨습니까?

4. - ○○골, ○○바위, ○○바위, ○○○산 뒤쪽 바위들입니다.

불탕, 거북, 지방, 동그래

5. 어떤 곳이 월명동 명소가 됩니까?

5.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“그 지역 안에서 제일 좋은 것을 그 지역의 명소로 치고 작품으로 보는 것이다. 내 ○○이 가고 네 ○○이 간 곳은 길이 빛내야 될 월명동 명소다. 사람도 그러하다.” 하셨습니다.

손길

6. 주님께 묻기를 “월명동을 이같이 하나님의 대 자연성전으로 만들

것을 이미 확실히 아셨으면서, 왜 주변 산에 본래 있었던 엄청나게 큰 노송들을 다 베가 버리게 하여 어쩔 그렇게 한 주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?” 했습니다. 이 질문에 주님은 무엇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까?

6. -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“내가 이미 소나무 ○○를 길렀다. 너를 통해 기른 것이다. 이미 자란 노송보다 너를 통해 기른 소나무들이 더 뜻이 있고 새롭지 않느냐. 전에 있던 노송들은 ○○을 말한다. 섭리사에 옛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. 새 시대 새 역사다. 그 노송들이 씨를 남기고 가서 아예 ○○ 소나무들을 어렸을 때부터 기른 것이다.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 않았느냐.

2세, 기성, 어린